

광주경찰, 자영업자 두번 울리는 ‘노쇼 피해’ 특별경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38건 피해 접수...4월에만 31건 집중
별다른 조치 없이 뒤늦게 ‘알아서 주의하라’ 캠페인식 주의보만
피해액 최대 6600만원 추정...검거 한 건도 못해 대처 미흡 비판

경찰이 최근 ‘노쇼(No-show) 사기’ 피해와 관련, 수개월 동안 피해가 잇따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특별 경보’를 발령,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선 수십 여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유사 사례를 적극 알려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커녕 쉬쉬하다 피해가 확산하자 뒤늦게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캠페인

을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노쇼’ 방식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특별 경보(노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월부터 4월 20일까지 광주 지역에서만 38건의 노쇼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4월 한 달 동안에만 31건의 피해 신고가 집중됐고 피해 규모도 360만원에서 최대

6600만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교도소·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해 음식점에 도시락 포장 등 대량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없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기 수법이다.

사가범은 단체 주문 이후 음식점에 연락해 “다른 업체로부터 전투식량,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 다른 물건을 대라구매 해 주면 그값까지 지불하겠다”고 요구하며, 대라구매 비용을 선입금 받은 뒤에는 잠적하는 식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라구매 과정에서도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 허위 명함,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그러나 지난 1월부터 관련 사건

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4월 들어 피해 신고가 집중될 때까지 별다른 김새를 차리지 못하고 있다 뒤늦게 지난 25일에야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보 발령 과정에서도 자영업자들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만한 유사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지 않아 사실상 생색내기성 경보를 발령하고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군부대 뿐 아니라 소방본부, 교도소 등을 사칭한 피해가 잇따랐고 이들 공공기관들이 법인 카드로 현장 결제를 자주 하는 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는 점, 대포폰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잦은 점 등을 알리는 등 적극적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서부경찰 금호지구대도 금호동, 풍암

동 일대 식당을 돌며 피해 예방용 전단지를 나눠 주기도 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유사 사례 안내조차 없이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명의 전단지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유사 사례나 범행 수법·특징, 구체적 예방 수칙 등은 부족했고 ‘외부 업체 대리 구매 유도’ 등 기본적인 사기 수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수사도 미진하다. 지난 1월부터 수십여건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검거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된 데 따라 자영업자들이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대처하라는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경보는 조례나 법에 따라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 차원에서 발령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두둔 망언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 즉각 파면하라”

5·18 3단체 사퇴 촉구 성명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5·18 단체 등으로부터 비판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공법단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5·18 북한군 개입설’을 두둔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던 중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이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논란이 있는 건 알지만, 진실 여부는 잘 모른다’고 발언해 5·18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된 시선을 드러냈다”며 “진화위는 국가 폭력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미래 동력을 만드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장의 인식 수준으로 인해 진실 규명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고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어떤 공직에

도 임명하지 않겠다 천명할 것 ▲국회가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2차 피해를 막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 ▲국가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진실화해위주 또한 최근 성명을 내고 “박 위원장이 극우 유튜브 수준의 망언을 했다. 5·18의 진실을 모른다는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반발 성명이 잇따랐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5·18 북한군 개입설’은 대법원 판결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전두환·지만원 등에 의해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됐다”면서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의 내용을 모른다고 한 것은 5·18의 진실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으로, 스스로 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 기초의원들은 박 위원장을 5·18을 왜곡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국가유산아행 꼬마의병 체험

2025 광주국가유산아행 ‘들의(義) 시간’ 행사가 26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조선시대 의병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광장 주변을 행진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계좌 추적...300억 실제 드러날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 환수부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소

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앞서, 5·18기념재단도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단은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연합뉴스

SKT 유심칩 바꾸기...이용자들 오픈런·헛걸음 ‘대혼란’

SK텔레콤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유심(USIM) 칩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예고했지만 지역민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제 폰’이 생기는가 하면, 은행 대출이 실행되면서 언제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다.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 뿐 아니라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 코인·주식 정보 유출이 걱정되는데 정작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제 때 유심 칩 교체가 이뤄질 지 미지수라 무

상 교체일(28일)에 맞춰 문 여는 시각부터 줄서기를 하는 이른바 ‘오픈 런’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걱정하고 있다.

27일 찾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휴대전화 대리점은 기존 유심을 바꾸려는 고객들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재고량이 일찍 동났는데도, 찾은 고객들이 많아 진땀을 흘렸다. 광주를 찾은 유승진(여·29·전북 남원시)씨는 “‘휴대전화 무단 복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에 복제 여부를 조회해봤는데 조회도 안돼 급한 마음에 대리점을 찾았다”면서 “문을 열지 않은 곳도 많아서 이곳저곳 찾아다

녔는데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앱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고령자 불만은 더 컸다. 정모(77·광주시 동구 동명동)씨는 “나 이 든 사람이 될 알겠냐. 해킹 당하지 않으려고 빨리 바꾸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왔는데 헛걸음을 했다”며 “내일 오전에는 바로 바꿀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장로의 한 대리점 관계자는 “갑자기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유심 수천만장을 만들기가 어려워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 당분간 재고 부족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